

김준의 갯살이



작은 섬으로 가자

몇 년 전 폐 비싼 값을 치르고 산악자전거를 구입했다.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해 몇 차례 산악 라이딩 연습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했던 것은 직장을 옮기면서 생긴 여유시간 동안 해안을 일주하는 자전거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다녀온 이촌마을과 포구, 어민과 섬사람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예상보다 임용날짜가 빨라졌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가족들의 반대였다. 이유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 무렵 내가 잘 아는 대학교수 한 분이 자전거를 타다 큰 변을 당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중순, 섬어 일을 유람에 있었다. 유람의 섬과 갯벌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전거였다. 자전거를 타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당시 기억이 떠올랐다. 덴마크의 망고, 독일의 랑고우, 네덜란드의 텍셀, 섬과 갯벌을 가는 곳마다 자전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통수단이였다. 모두 북해와 접한 섬들이었다. 이들 섬과 대륙사이에 있는 와덴해 갯벌은 세계자연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걷는 사람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습지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경관자재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여행문화가 부러웠다. 유람의 번덕스런 날씨는 시시각각 변했다. 금방 햇볕이 내리쬐다가 붉은 빛줄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과 생태여행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휴가 시즌이라 고속도로에서 캠프카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신의 승용차나 캠핑카를 임대해서 여행을 하든지 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기본이었다. 시골길보다 다운타운의 자전거도로가 더 넓고 잘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만 들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섬에도 자동차 주차장처럼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자전거 신호체계가 만들어진 곳도 있었다. 자전거 대어는 물론 수리소도 있었다. 좁은 시골길의 자동차 최고 속도가 100km였다. 너무 과속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교차로에서 반드시 서행하거나 멈추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으면 먼저 지나도록 한 교통체계 때문에 훨씬

안전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고 자전거 여행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에 맞물려 걷기 좋은 멋진 길들이 소개되고 있다. 여수 금오도 비렁길이나 명품길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산도의 슬로우길, 진도에 아리랑길, 신안에 모실길, 나무를 하기 위해 섬사람들이 오르던 지렛길, 뱃길이 좋지 않을 때 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던 작은 오솔길 등 좋은 길이 많다. 물에 비해 차가 적어 안전하고 현란한 간판과 소음 공해로부터 벗어난 한적한 섬 길의 매력도 주목받을 것이 분명하다. 작은 섬길은 어떤가. 자동차가 없는 곳도 많고, 차를 한 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파도와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갯벌에서 가래로 낙지를 파는 어민을 만날 수 있다. 모두 남도의 섬 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다렸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섬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다. 어민들이 잡은 생선과 조개류를 사서 방앗간에 올려보자, 이게 진정 로컬푸드요, 슬로우푸드다. 푸드마일리지 가 가장 짧은 웰빙음식이다. 어민도 살고 지역문화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행복한 여행이다. 이를 두고 요즘 착한여행이라 하던가. 좀 불편하면 어떤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행이 아닌가. 그러다 맘에 들면 평생고객이 되자. 마늘도 사고, 양파도 사고, 쌀도 사자. 옆집에도 소개하자. 이게 섬을 살리는 길, '섬길'이다. 섬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일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생산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배한 농산물과 바다와 갯벌에서 얻은 수산물은 어떤 보양식보다 몸에 좋다. 필자도 '섬문화답사기'를 집필하느라 몇 년째 주말이면 섬길을 걷고 있다. 걷는 것 외에 방법이 없으니 가끔은 자전거를 신세도 진다. 걷는 기분, 자전거를 타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여름휴가는 섬으로 가자. 작은 섬이면 더욱 좋다. 자전거여행을 하다 호젓하고 멋진 길이 나오면 자전거를 주차시켜놓고 섬 길을 걷자. 잘 알려지지 않는 길이면 더욱 좋다. 전라남도에는 300개 가까운 사람 사는 섬이 있다. 사람 얼굴이 제각각 다르듯 섬도 그렇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거나.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중고칼럼



주혜정

삼복 더위라는 요즘, 연일 폭염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으로 산으로 해변으로 영화관 등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 피서할 곳을 찾는다. 특히 최근에는 런던올림픽 개막과 함께 국가 대표들의 시원한 메달 획득 소식은 집에서 피서하지 못지 않은 즐거움을 안겨준다. 소위 국가 대표들의 땀방울이 국민들의 피서지인 셈이다. 이러한 더위를 이기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음식에서도 나타난다. 흔히 즐겨먹는 삼계탕이 그 한 예로 더운 성분을 가진 인삼 대추 등과 닭을 고아 먹음으

로써 이열치열이라 하여 한여름의 더운 열기를 삼삼을 통해 다스리려던 것이다. 삼복이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의 세 절기로 여름의 혹서를 대표한다. 이는 양(陽)이 극한 한더위에 음(陰)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陽)에게 세 번 물러야 함복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衰)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얻게 되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원복고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는 이것이 극(極)하면 변하고 미(微)하면 나타나는 우주자연의 이치라 하시고, 정권의 소강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盛衰)도 그러하므로 이 원리를 알아서 그 성(盛)할 때 항상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라고 하셨다.

삼복(三伏)과 처세(處世)

그러나 범부들은 그러한 우주자연의 원리를 알지 못하므로 성할 때, 소위 잘 나갈 때는 그 지위와 권력과 재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남용한다. 타인을 위해 그 힘을 나누기 보다는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 추수와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며 오히려 그 힘으로 대중을 괴롭히고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예가 많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예도 많아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부와 권리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지혜로운 거문도 많다. 한 예로 300년 동안 부를 지켜온 '최부자 집'을 보자. '최부자'라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를 지켜온 거문이다. 최부자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거의 모두 '부'를 일구고, 당대에 망했거나 길어야 3대까지도 가기가 어려웠다. <신창교당 교무>

기고

나라를 지키는 내가 자랑스롭습니다



임재하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가 후보자들과 그 가족의 병역이행 문제다. 모든 국민들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이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 된 도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는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국민계병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만19세

가 되는 남자는 병역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고, 현역병으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일부는 병역이 면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제도 하에서 질병이나 신체장애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워 공익근무요원 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질병이나 장애를 치유하고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자진병역이행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신체적 결함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역 등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장애요

인을 극복하여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선택한 것이다. 아직도 아주 소수의 병역의무자들이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하위로 징병을 꾸며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몰염치한 시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진병역이행자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떠받치고 이끌어 나갈 미래의 기둥이요, 국가의 주춧돌이라 할 수 없다. 자진병역이행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됐다. 그 이후 자진병역이행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해졌다. 한 젊은이는 시력 이상으로 징병검사서서 공익근무요원 관정을 받았지만 미래 자신의 꿈은 항공기정비사가 되기 위해 시력장애를 치료한 뒤 공군 항공정비병으로 지원했다.

제역할 못하는 사외이사 고액연봉만 챙겨서야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기타 불법 비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드러나는 문제가 사외이사 논란이다. 사외이사 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제 구실을 못한 채 거수기 혹은 먹고 튀는 (돈만 먹고 댕다는 뜻)노릇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외이사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기업의 이사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과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한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외이사들의 역할과 기업들로부터 받는 연봉 액수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내 굴지의 대 대기업의 경우 작년엔 총 35개 안건이 심의했으나 사외이사들의 반대 의견이 제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9200만원이었다고 한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사외이사라는 직함 하나만 가지고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초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기업에 반대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지, 기업의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은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경우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못박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먹튀를 방지하고 이사의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현행처럼 임원보수 공시를 1인당 평균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사외이사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주의 이사회

의장 선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현재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시선이 급지 않다는걸 염두에 뒀다. 빵집부터 떡집 등 서민들의 생계형 점포에까지 손을 대어 서민들의 자영업 시장을 독식하는 대기업들의 행태 등 국민들이 대기업 거부감이 왜 생기는 지 깨달아 주기 바란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후원 줄어든 광주문화계 활성화 해법 없나

광주 문화계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등이 추진중인 '아트광주 12'는 전년에 비해 후원금이 반토막났고, 광주비엔날레 후원금도 매년 줄어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2일 현재 기업 '아트광주' 후원금은 1억50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3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후원금에 행사기간 중 현물로 지원되는 물품(35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행사예산은 훨씬 줄어든 셈이다. 문화재단은 올 대회에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시·비 3억 원 이외에 나머지를 민간 후원금과 버스 판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참가 버스(81개)나 부대행사 등의 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행사 차질마저 우려된다. 벌써부터 지역문화계에서 '고만고만한 축제형 베품시장'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오

는 이유다. 비엔날레 후원도 급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기업 후원금은 2개 업체 1억800만 원에 불과했다. 2008년 17개 업체 8억1300만 원, 2006년 22개 업체 19억5000만 원, 2004년 11개 업체 15억2700만 원 등, 2002년 14개 업체 14억5600만 원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올해 치러질 9회 대회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데 있다. 경기침체에다 여수세계박람회 등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원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제 앞가림'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메세나 운동을 비롯한 기업의 '문화투자'는 목적인 의식보다 문화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주시, 문화재단 등의 적극적인 독려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오

폭염 속 농·수·축산 관리도 만전 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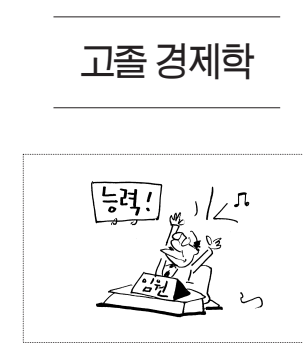
10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농·수·축산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섬서 35도를 웃도는 고온현상이 지속될 경우 벼 도열병 및 과채류 상품성 저하, 가축 번식장애, 양식장 대량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살인 폭염'이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벼 잎 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등이 발생하면 수경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과채류도 뿌리 활력 저하로 생육이 부진하고 갈슘결핍 증상으로 품질과 당도도 떨어질 수 있다. 돼지, 소 등 가축은 고온에 폐사율이 높고, 발육부진과 번식률 감소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닭과 돼지는 열사병과 일사병으로 인한 폐사와 함께 산란율도 크게 저하된다. 수산 양식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해 집단폐사와 발육저하, 적조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가 폭염피해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관리와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 강화와 공동방제에 나서야 할 것이며 축사 위생관리, 방역소독 등 철저하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전으로 인해 에어컨러 가동도 중단되면 양식 어류와 가축이 집단 폐사할 수 있어 정전사태 대비도 시급한 과제 가 아닐 수 없다. 농민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축 폐사 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비닐하우스 온도 관리와 채소류 수급 관리 등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대비, 출하량 조절에도 나서야 한다. 이번 폭염이 적어도 다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수·축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無等鼓

얼마전 장인수 오비맥주 사장의 입지전(立志傳)이 화제가 됐다. 고등학교만 나와 대기업의 사장이 됐다는 것만해도 놀라운 일인데 15년만에 오비맥주를 업장 1위로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장 사장은 자칭 '순고' 출신이라고 말한다. 순천이 고향인 그에게 '순고'는 순천 고가 아닌 '순수 고평'이란 의미다. 사장에 오른 그가 내린 첫 조치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고졸 신화는 이전에 종종 화제가 됐다. 흑산도 출신인 윤성진씨는 1978년 금호타이어에 기능직으로 입사해 일곱번의 기적같은 특진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전무까지 올랐다. 그는 신입사원 교육을 마쳤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인사 담당자가 꿈이 뭐냐고 묻자 주저없이 금호타이어 부장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는데 주위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것이다. 그렇지만 한 것이 그때까지는 고졸 기능직 중에서 주임이 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13년간 하루 4

시간 이상 지지 않고 1년에 2000건의 제안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직장의 꿈이라는 대기업 임원이 됐다. 하지만 보통의 고졸 출신들은 일상생활에서 갖은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차별은 학력차별에 대한 냉엄한 현실을 새삼 인식시켰다. 석·박사 보유자에겐 54점, 고졸 이하면 13점을 매겨 저학력자들에게 더 비싼 이자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렇다고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전의 실업제 고교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출신이 대졸자보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이 1억 원 가량 많다는 통계가 그것이다. 고교와 대학 졸업 후 50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경우 수입은 7억 원대로 비슷하지만 대졸자의 등록금과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졸이 1억 원을 더 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졸 경제학'이 고졸 신화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석,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채우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